

# 처벌기준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판단기준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대법원이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약 30m 구간을 운전한 뒤 차로 변경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측정됐다.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이 '상승기'일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중

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운전 종료 후 불과 12분 만에 측정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점 ▲측정 당시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 상태가 술에 취한 모습이었던 점 ▲사고 경위가 음주운전 정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태도였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일부 사건에서 위와 같은 '측정 시점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최근 대법원은 앞서 본 판결과 같이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서 '측정 시점의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존 일부 판례의 흐름을 제어하고, 실제 운전 당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에 따른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하고 측정치가 처벌기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운전 당시 취한 상태가 인정되면 처벌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져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 상생보험, '선의'보단 '기준'



김지수첩  
김주형 (금융부)

상생보험은 반대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질병과 사고, 날씨 같은 생활위험 앞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보장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다만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제도일수록, 어디까지가 보험이고 어디서부터가 복지인지 경계선은 더 또렷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지난 16일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계획도 내놴다. 생명보험 기준 국민 전체 보험가입률은 84.0%지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24.5%에 그친다. 보장 사각지대를 메

우겠다는 방향은 분명 의미가 있다.

문제는 무상가입 자체가 아닌 무상가입이 반복될수록 보험의 성격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본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해 나누는 장치다. 반면 복지는 재정으로 사각지대를 메우는 장치다. 둘 다 필요하지만, 이점이 비슷해지는 순간 책임의 선도 함께 흐려진다.

이번 상생보험은 더 그렇다. 6개 지자체는 생명보험 1개와 손해보험 1개씩 총 20억원 규모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인데,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생보 쪽은 신용생명보험이 공통으로 추진된다. 손보 쪽은 건설 현장 기후보험, 사이버케어보험 등 지역별 필요에 맞춘 상품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가입대상과 보장사항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함께 꾸리는 실무자업반에서 정하고, 가입 개시는 올해 3분기가 목표다.

무료로 가입시키는 순간 정책은 쉬워 보인다. 하지만 왜 이 위험을 공공이 함께 떠안아야 하는지, 지원 대상은 어떻게 가르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지면 상생보험은 제도라기보다 이벤트에 가까워진다.

구조는 그만큼 더 차갑고 분명해야 한다. 가입자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보장인지, 한 시적 지원인지 헷갈리기 쉽고, 보험사는 상품과 사회공헌의 경계에서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 제도는 선해 보이는데 책임의 구조는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상생보험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미사여구가 아니다. 왜 이 위험에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지, 누가 얼마 동안 비용을 부담하는지, 지원 종료 뒤 보장은 어떤 원칙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상생보험은 선의로 출발할 수 있다. 오래 가려면, 선의보다 기준이 먼저 서야 한다.

/gh471@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3일 (음 2월 5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취** 48년생 주위 사람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60년생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세요. 72년생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84년생 일에 장애가 많아 초조합니다.
- 소** 49년생 목욕이 물러나 지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61년생 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73년생 흥한 인간 관계가 있다면 속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85년생 모든 일을 자제하세요.
- 호랑이** 50년생 어려움을 이겨낼 굳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62년생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세요. 74년생 성실한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세요. 86년생 여행은 금물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토끼** 51년생 주위에 사람들과 재물들이 모여 행복합니다. 63년생 바른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입니다. 75년생 이성인이 좋은 시기입니다. 87년생 재물이 모인다고 독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용** 52년생 귀인에게 자문을 구하면 성공합니다. 64년생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76년생 동남방이 길한 방향입니다. 88년생 고집을 버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고쳐보세요.
- 뱀** 53년생 아랫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5년생 고생한 모든 것이 좋은 운이 되어 들어옵니다. 77년생 마음을 비우고 행동하세요. 89년생 욕심을 내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 말** 54년생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66년생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78년생 고통을 견디어 내는 인내를 가지도록 하세요. 90년생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 양** 55년생 체념하지 말고 견디며 나아가 때입니다. 67년생 다툼을 주의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79년생 어렵겠지만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세요. 91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 원숭이** 56년생 평탄한 길을 왔지만 곧 시련이 찾아옵니다. 68년생 남성이려면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80년생 어긋남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대법하세요. 92년생 조그마한 일에 충실하세요.
- 닭** 57년생 중도를 염두 해 두고 행동하세요. 69년생 타인의 잘못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81년생 성의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93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개** 58년생 남의 눈을 의식해서 노력한다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70년생 남보다 앞장서려 하지 마세요. 82년생 다른 사람의 뒤에서 묵묵히 따라주세요. 94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 돼지** 59년생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길러야 합니다. 71년생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83년생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힘듭니다. 95년생 만족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길합니다.



## 김상회의四季 봄 절기

입춘 우수와 경칩도 어느새 저만치 갔다. 춘분과 곡우 그리고 청명을 맞으면 여름을 맞이한다. 계절을 느끼고 맛보는 데는 단연 절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절기와 절기 간격은 약 2주지만 세월의 오고 감을 느끼는 것은 절기만큼 은근한 것이 없다. 어쩔 그리도 절기마다 시절의 특성이 명료한지 말이다. 입춘이 어떤 누가 뭐래도 봄은 시작을 알린다. 햇살 자체가 엄동설한의 햇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수(雨水) 때는 누가 뭐래도 비가 내린다. 싹이 트도록 수분을 보내 주는 것이다. 원래 우수의 원천은 겨우내 얼었던 눈이 녹아 비와 물로 변한다 해서 우수(雨水)가 된 것이다. 물이어도 냉습한 물이 아니라 봄햇살이 담긴 새싹을 움트게 하는 따뜻함을 품은 물이다. 너무 차면 싹이 솟아나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되니 말이다. 그래서 봄비는 정겹게 촉촉하다.

경칩은 말할 것도 없이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니 땅이 우수 때 내린 비로 인해 땅은 부드러워지고 개구리가 기지개를 켜는 것이다. 어디 개구리만 깨웠는가? 겨울잠을 자던 동면 생명들은 물론이거니와 나무들도 깨어나 단풍과의 나무들에서는 고로쇠물이 흘러내리니 삼라만상이 드디어 겨울의 냉기를 이겨내고 기지개를 펴며 깨어난다. 춘분부터는 해의 길이가 밤보다 낮이 길어지면서 아지랑이가 피어난다. 청명에는 화창한 기운이 만연하여 드디어 봄 농사를 준비하면서 곡우 때 내린 비는 농사비로써 못자리를 마련한다. 곡우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해 농사는 걱정스럽다. 그래서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 자나 마른다."는 풍속서까지 생긴 것이다. 봄비가 내려 백곡(百穀) 즉 백 가지 곡식을 기르게 한다는 것이 곡우 아니던가. 농경 수채화를 그리려면 절기의 특징을 묘사만 해도 파노라마가 완성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레코드를 달성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9	2			7	8
4			6			5	9	
7				6			3	
	9		1	3		9	8	
	4	6			2			5
9	7			5	1			4

3				6	1			5
	2		4					6
8		5		7		4		
7								5
		8					9	
	4							6
		2		3		8		1
5					9			3
9		3	1					7

9	7	8	1	9	8	2	4	6
6	2	4	9	6	7	8	1	9
9	8	1	2	6	4	9	7	8
2	9	7	4	8	1	6	6	9
4	9	8	6	7	8	1	9	2
1	6	6	9	9	2	7	8	4
6	9	8	1	9	4	2	7	4
7	1	2	6	4	9	6	9	8
8	4	9	7	2	6	9	6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7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